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의 단말기 제조업 진출

- CDMA 단말기의 공급능력이 수요 앞질러 -

CDMA 단말기의 공급능력이 수요를 크게 앞지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 CDMA 단말기 시장과 더불어 국내시장에서도 공급능력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 CDMA 단말기를 생산하고 있는 8개사외에 약 5개사의 후발 중소전문업체들이 생산에 참여하게 되는 내년에는 과당경쟁으로 인해 어렵게 쌓아온 CDMA 단말기의 수출기반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나아가 산업이 부실화 될 것으로 우려되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 CDMA 이동전화단말기의 국내외 수요·공급 동향 및 전망

1. 세계 이동전화가입자 전망

▲ 총 가입자

- 98년말 현재 세계 이동전화가입자수는 2억8천6백만명, 2000년에는 약 4억500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지역별 비중('97)은 아태지역이 35.2%, 북미 27.4%, 유럽 등이 37.4%

〈세계 이동전화가입자 전망〉

(단위 : 백만명)

구 분	'97	'98	'99	'2000	증가율(%)		
					97/98	98/99	99/2000
계	210.7	285.8	365.7	450.2	36.2	27.9	23.1
CDMA	7.4	17.8	36.8	59.8	140.1	106.7	62.5
GSM	70.8	114.3	162.3	213.4	61.4	41.9	31.3
기타	132.5	153.7	166.7	177.0	-2.7	8.5	6.2

자료 : 스트래티지스 그룹, 98. 5월 보고서

《지역별 CDMA 가입자 전망》

(단위 : 만명)

지 역		'97	'98	'99
총 계		740	1,780	3,680
비 중	한 국	70%	64%	39%
	북 미	25%	25%	30%
	중남미	1%	1%	3%
	기 타	4%	10%	28%

자료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CDMA 가입자 전망

- 98년말 약 18백만명, '99년이면 37백만명 예상된다.
- '98년 순증 10백만명, '99년에는 약 20백만명 예상. 그러나 우리나라는 3백만명이하로 올해 대비 절반수준이 전망된다.
- '99년에는 순증가입자 기준으로 약 24% 점유가 예상된다.
- 97년 GSM대비 10%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99년 20%, 2000년 28%로 점차 확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부상되고 있다.
- 지역별로는 우리나라가 '98년

도까지는 64%정도를 차지하겠으나 '99년도에 이르면 미주, 기타지역의 서비스개시가 본격화되고 우리는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어 39%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2. 세계 CDMA단말기 수급 전망

수 요

- 세계 CDMA 단말기 수요는 연간 약 20백만대 예상된다.
- 이는 '98년에 비해 약 67%의 고 성장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년도 360만대 수준으로 올해의 700만대에 비해 -49%로, 급감이 예상된다.
- 이동전화가입자의 한계수요가 가장 큰 원인이다. (한계수요:1,400-1,500만 가입자 예상)
- 현재 CDMA 가입자만 약 1,200만 육박하고 있다.
- 기타 지역은 일본, 중국 등의 지역이 수요가 늘어나 크게 성장하고 있다.

공 급

- 현재 생산업체의 CDMA 공급능력만 약 3,000만대로 올해 수요 1,200만대 보다 1,800만대 초과하고 있다.
- 지역별로는 우리나라가 약 2,700만대, 일본, 미국 등이 1,300만대
- '99년이면 일본업체 등의 생산가세로 공급과잉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 생산능력 4,000만대, 수요는 2,000만대로 2,000만대 초과

《CDMA 단말기 지역별 수요》

(단위 : 만대)

지 역	'98	'99	증가율
계	1,200	2,000	66.7
한 국	700	360	-48.6
북 미	300	700	133.3
기 타	200	940	370.0

주 : 단말기수요는 보통 순증가입자보다 20%내외의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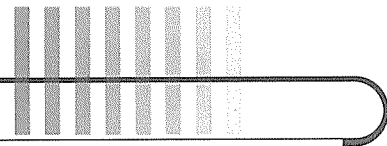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세계 CDMA 단말기 수급 전망》

(단위 : 만대)

구 분	'98	'99	증감율(%)
수요	1,200	2,000	66.7
공급 (능력)	3,000	4,000	33.3
공급과잉 (수요-공급)	1,800	2,000	200

자료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3. 국내 이동전화 수급 및 제조업 계 현황

'98년

- 생산(수요)은 수출수요를 포함 총 1,085만대이나 생산능력은 2,700만대로 약 1,600만대 공급능력 과잉이다.
- 수요중 내수는 735만대 정도로 수출의 약 2배를 차지하고 있다.

'99년

- 후발 중소·중견기업 5개사가 가세하여 생산능력은 연간 3,12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 수요는, 수출을 올해 대비 71.4%나 증가한 600만대로 계획해도 내수의 대폭 감소(-53.7%)로 940만대에 불과하다.
- 공장가동율은 30%수준으로 전

년대비 10%포인트나 떨어지고 공급과잉분은 2천만대의 초과가 예상된다.

▲ 생산업체 동향(CDMA)

- 기 생산업체 : 삼성전자, LG 정보통신, 현대전자, 맥스전자, 한화/정보통신, 해태전자, 어필텔레콤, 텔슨전자 등 8개사 (생산능력 : 27,000천대/년)
- 생산추진업체 : 팬텍, 스텐다 드텔레콤, 세원텔레콤, 건인텔레콤, 핵심텔레텍 등 5개사 (생산능력 : 4,200천대/년)

▲ 공장가동율 추이(CDMA 중심)

- '97년 : 90 - 100%
- '98년 (9월) : 40 - 60%
- 생산 : 총 10,850천대(수출 : 3,500천대, 내수:7,350천대)
- 생산능력 : 27,000천대(8개사)
- 생산평균공장가동율 : 약 40%

- '99년 전망 : 약 30% 정도
- 생산 : 총 9,400천대(수출 : 6,000천대, 내수 : 3,400천대)
- 생산능력 : 31,200천대(13개사)
- 연평균공장가동율 : 약 30%

II. 이동전화 사업자의 단말기 제조업 진출시의 문제점

1) 공급과잉으로 인한 공장가동율 저하 및 전문 중소·중견기업 사업이 곤란하다.

- 세계 CDMA 수요는 연간 20,000천대, 공급 능력은 총 40,000천대로 20,000천대가 공급과잉 상태이다.

세계수요 : 20,000천대
(국내:7,500천대)
공급능력 : 40,000천대
(국내:27,000천대)

《국내 CDMA 단말기 수급 추이(공급능력 중심)》

(단위 : 만대)

구 분		'98	'99	증가율(%)
생산	계	1,085	940	-13.4
	내수용	735	340	-53.7
	수출용	350	600	71.4
생산(공급)능력		2,700	3,120	15.6
공급능력초과 (생산능력-생산)		1,615	2,180	35.0
공장가동율 (수요/생산능력)		40.2%	30.1%	↓10.1%P

자료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향후 수요측면에서 내수 증가를 크게 둔화, 공급측면에서는 경쟁국인 일본의 생산 수출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므로 공급과잉 심화가 예상 된다. 이런 상태에서 서비스사업자까지 제조업에 참여시 공급과잉은 한층 더 심화되고, 이로 인해 공장 가동율은 '97년에 90-100%에서 현재('98년 9월) 40-60%로 저하되었으며 '99년에는 약 30%로 저하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미 생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10여개사의 전문 중소·중견기업들의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로 사업이 곤란하다.

2) 사업구조조정예 역행되어 거대 선진기업들과의 수출경쟁 곤란

선진국들의 단말기 제조업체는 1-2개사로 전문화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는 기 생산업체만도 8개사로서 공급 과잉상태여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또 5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 추진 중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하는 대기업까지 신규로 제조업에 참여하는 것은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업종의 전문화 시책에도 배치되고 있으며, 만일 이렇게 될 경우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업계만이 과당경쟁으로 수출단가 하락과 채산성 악화를 초래시켜 궁극적으로 수출경쟁력까지 약화된다.

3) 과잉 중복투자로 국력손실 및 기술개발력 약화

현재까지 우리 업계 총투자는 약 2조원을 상회, 공급과잉 상태에서 계속적인 투자(1개사 평균 약 5천억원)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손실이다. 또한 해외로 알티지불증가로 막대한 외화 낭비를 초래하게 되며 현재 이동통신분야는 전문 기술개발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로 서비스업체까지

제조에 신규참여시 전문기술인력 부족이 심화되어 고부가가치의 신상품 개발이 곤란하다.

4) 수직계열 체제로 인한 불공정 거래 발생가능성 상존

자본 계열화된 기업간 거래(내부거래)에서는 구매의 우선, 가입 보조금 차등 지원 등으로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를 확인하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여타기업, 특히 전문 중소·중견기업은 경쟁에서 현저히 불리하고 사업자의 직접 제조는 물론 자회사 및 OEM을 통한 제조업 참여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겸업제한 취지에 배치되고 있다.

- 통신사업자의 겸업제한 목적
 - 전기통신산업 발전에 저해
 - 전기통신사업 운영에 지장 초래

5) 이동전화 사업자의 단말기 제조업 참여가 확산될 경우 국내 단말기 제조 전문업체는 설 땅을 잃게 되고 수출 기반도 상실하게 된다.

1개 이동전화 사업자가 단말기 제조업 진출시 전체 이동전화 사업자로 확산 및 모든 통신사업자의 제조업을 막을 명분이 부재하며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어렵게 만든 국내 단말기 전문제조업체의 수출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향후 내수기반을 바탕으로

로 부품국산화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도 곤란하게 된다.

6) 이동전화 서비스 업계 및 소비자(가입자) 측면에서도 전화서비스업계는 업종의 전문화를 통해 통화품질의 향상, 고객의 확대, 서비스 요금 인하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 시장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어렵게 만든 가장 큰 문제가 중복·과잉 투자이며 이로인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만든 문제를 관민이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또 CDMA 단말기를 가지고 새로운 구조조정 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조조정을 해야할 상태에 이르면 적지 않은 손실과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구조조정을 해야할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정부와 우리업계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8개사의 결론적으로 이동전화 사업자의 단말기 제조업 진출은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많은 저해요소가 있고 특히 현재로서는 공급과잉 상태에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며 전기통신사업 운영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